

2019. 05. 19.

성명	
수험번호	
감독관 확인	

제54회

KBS 한국어능력시험

(홀수형 문제지)

※ 수험번호 맨 끝자리 수가 홀수인 수험생용입니다.



- 문제지와 답안지에 모두 성명,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십시오.
- 답안지와 함께 문제지를 반드시 제출하십시오.
- 본 시험지를 절취하는 것은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 본 시험의 내용을 무단으로 전재 · 복사 · 복제 · 출판 · 강의하는 행위와 인터넷 등을 통해 복원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저촉됩니다.

한국어능력시험 홀수형 문항(100문항)

※ 수험번호 맨 끝자리 수가 홀수인 수험생용입니다.

영역	문항 번호
듣기·말하기	1 ~ 15
어휘	16 ~ 30
어법	31 ~ 45
쓰기	46 ~ 50
창안	51 ~ 60
읽기	61 ~ 90
국어 문화	91 ~ 100

[듣기·말하기] (1번~15번)

1. 그림에 대한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부인은 머리를 둥글게 말아 올렸다.
- ② 주인은 고양이에게 곰방대를 휘두르고 있다.
- ③ 돛자리를 짜던 자리틀이 마루에서 굴러 떨어져 있다.
- ④ 어미 닭은 병아리를 물고 가는 고양이에게 대들고 있다.
- ⑤ 건물의 기둥과 나무를 각각 수직과 수평 방향으로 그려 놓았다.

2. 이 이야기 마지막에 이어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의 경험보다는 현재의 환경이 살아가는 데 더 중요합니다.
- ② 주어진 환경보다는 끊임없이 도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 ③ 자신이 처한 좋지 않은 환경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 ④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만족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 ⑤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보다는 어떠한 삶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3. 강연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과거에 별 문제 없이 쓰이던 말도 오늘날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 ② 장애인 차별적인 제목의 문학 작품은 수업 시간에 다루지 말아야 한다.
- ③ 정신병자와 병신은 각각 정신 장애인과 지체 장애인으로 순화해야 한다.
- ④ 장애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관용적 표현을 다른 말로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⑤ 장애인 단체에서는 병어리, 외눈박이와 같은 단어가 포함된 관용 표현은 쓰지 않도록 권유하고 있다.

4. 리포트를 듣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김구 선생은 문화의 힘을 강조하였어.
- ② 삼균주의는 교육, 문화, 경제 세 분야의 균등을 강조한 것이야.
- ③ 임시정부의 건국 강령 초안은 조소앙 선생이 친필로 작성하였어.
- ④ 백 년 전 임시정부가 원했던 세상은 우리가 이뤄내야 할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아.
- ⑤ 임시정부가 품었던 대표적인 이상은 삼균주의와 문화 강국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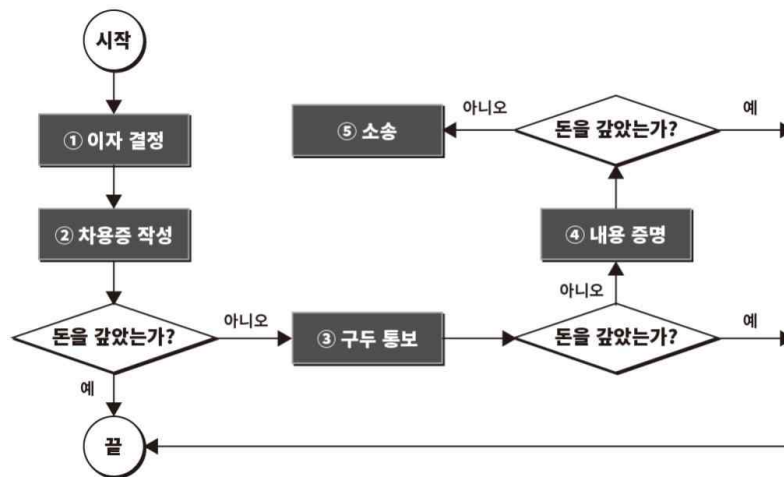
5. 이 시의 '이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발 ② 시계 ③ 전등 ④ 보석 ⑤ 거울

6. 변호사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알고 있던 사람들 간에 돈 거래를 할 때에도 차용증을 작성해야 한다.
- ② 차용증에 이자를 정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5%의 이자가 정해지게 된다.
- ③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차용증을 작성한 즉시 내용 증명을 해 두어야 한다.
- ④ 소송을 할 때에는 법원에 소장과 차용증, 내용 증명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 ⑤ 차용증에는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7. 변호사가 설명한 금전 거래 절차를 알고리즘으로 표현하였을 때, 적절하지 않은 단계는?



8.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등장인물의 생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엄마: 풍족하게 사는 사람들만 결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② 엄마: 젊었을 때 짝을 만나 결혼해야 나중에 편안하게 살 수 있다.
- ③ 엄마: 집에서 개를 키우는 것은 돈이 많이 들고 신경이 많이 쓰이는 일이다.
- ④ 아들: 결혼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다.
- ⑤ 아들: 개를 키우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고 새끼를 낳아서 팔면 돈을 벌 수 있다.

9. 두 사람의 갈등이 촉발된 근본적인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결혼 적령기에 대한 시각 차이
- ② 결혼 비용에 대한 시각 차이
- ③ 자주성가에 대한 시각 차이
- ④ 데이트 비용에 대한 시각 차이
- ⑤ 반려동물을 키우는 목적에 대한 시각 차이

10. 강연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 ① 고혈압 자체만으로는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② 고혈압으로 인해 관상동맥이 좁아지면 뇌경색이 발생한다.
- ③ 콩팥은 노폐물을 걸러 내고 혈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 ④ 혈관이 좁아지면 혈액이 혈관 내벽에 가하는 압력이 높아진다.
- ⑤ 고혈압이 오래 지속되면 콩팥의 모세혈관이 손상되어 콩팥병이 발생한다.

11. 이 강연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혈압이 높아지는 원인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②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③ 쿡팔 이상으로 생기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④ 통계를 인용하여 고혈압의 심각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 ⑤ 고혈압을 원인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합병증들을 제시하고 있다.

12. 두 사람의 입장을 가장 바르게 이해한 것은?

- ① 최 과장은 자신에게만 일이 몰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 ② 김 부장은 최 과장의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 ③ 최 과장은 김 부장이 일부러 트집을 잡는다고 생각한다.
- ④ 김 부장은 최 과장이 고의적으로 실수를 했다고 생각한다.
- ⑤ 김 부장은 최 과장이 제때에 일을 처리하지 않아 화가 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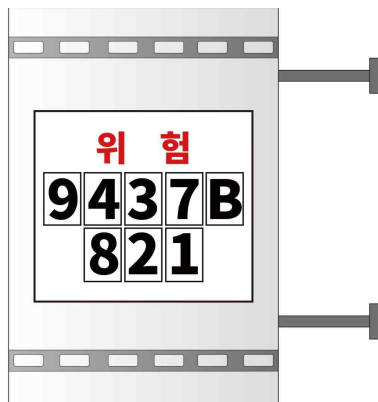
13. 두 사람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박 팀장의 행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김 부장에게 부하 직원과 소통하는 방법을 설명해 준다.
- ② 김 부장에게, 최 과장이 자신이 지시한 업무를 먼저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 준다.
- ③ 최 과장에게, 김 부장이 평소 최 과장의 업무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음을 설명해 준다.
- ④ 최 과장에게, 정확히 언제까지 일을 끝낼 수 있는지를 상사에게 알려주어야 함을 설명해 준다.
- ⑤ 최 과장에게, 일이 밀릴 때는 업무를 지시한 상사에게 상황을 미리 보고해야 함을 설명해 준다.

14. 이 발표에서 제시한 정보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NATO 포네틱 코드는 대표적인 음성 문자이다.
- ② 음성 문자는 군인이나 조종사들이 주로 사용한다.
- ③ BTS(방탄소년단)의 음성 문자 발음은 널리 알려져 있다.
- ④ 음성 문자는 열악한 통신 환경을 고려해서 규정된 것이다.
- ⑤ 통신 숫자와 음성 문자는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15. 다음 ‘전주 번호찰’을 음성 문자와 통신 숫자로 발음한 것은?



- ① 구 - 사 - 셋 - 칠 - 비 - 팔 - 이 - 일
- ② 구 - 넷 - 셋 - 칠 - 비 - 팔 - 둘 - 하나
- ③ 아홉 - 넷 - 삼 - 칠 - 비 - 팔 - 이 - 하나
- ④ 아홉 - 넷 - 삼 - 칠 - 브라보 - 팔 - 둘 - 하나
- ⑤ 아홉 - 사 - 셋 - 칠 - 브라보 - 팔 - 이 - 하나

[어휘] (16번~30번)

16. “쓸데없는 말을 지껄이기 좋아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고유어는?

- ① 오지랖 ② 허름숭이 ③ 만무방 ④ 농투성이 ⑤ 가납사니

17. 밑줄 친 한자어의 사전적 뜻풀이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향(志向): 작정하거나 지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르는 말.
 ② 사족(蛇足): 쓸데없는 군것질을 하여 도리어 잘못되게 함을 이르는 말.
 ③ 백미(白眉): 여럿 가운데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나 훌륭한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④ 치부(恥部): 남에게 드러내고 싶지 아니한 부끄러운 부분.
 ⑤ 선풍(旋風): 돌발적으로 일어나 세상을 뒤흔드는 사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8. 밑줄 친 고유어의 의미를 바르게 풀이하지 못한 것은?

- ① 부하 직원에게 일의 갈무리를 부탁했다. → 일을 처리하여 마무리함.
 ② 형이 음식을 갖고 계속 가탈을 부리고 있었다. → 이리저리 트집을 잡아 까다롭게 구는 일.
 ③ 그는 성공할 쌈수가 보인다. → 어떤 일이나 사람이 앞으로 잘될 것 같은 낌새나 징조.
 ④ 그녀는 하는 말과 행동이 무람없어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 부끄러워하여 삼가고 조심하는 데가 있다.
 ⑤ 그 사람은 몽니가 꺾어서 상대하기가 어려운 인물이다. → 받고자 하는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내는 심술.

19. 밑줄 친 한자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녀는 지방의 도립 병원에서 차출(差出)되어 온 간호사이다.
 ②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 예산안을 심의(審議)하였다.
 ③ 그가 범죄자로 이름이 회자(膾炙)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④ 그 선수는 많은 이의 예상을 뒤엎고 재기(再起)에 성공하였다.
 ⑤ 이적해 온 선수의 눈부신 활약(活躍)으로 인해 우리 팀이 승리하였다.

20. 밑줄 친 한자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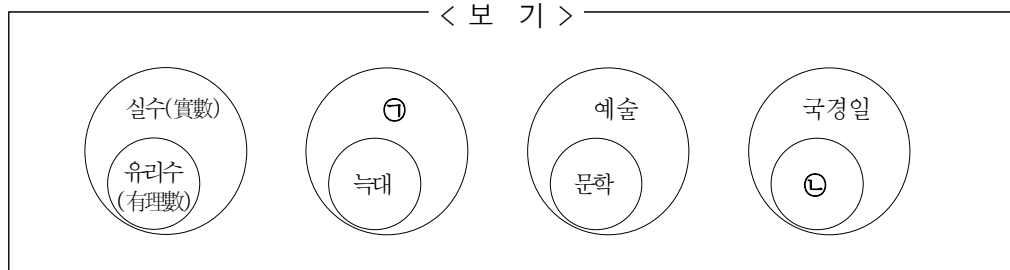
- ① 그 사람은 많은 연주자들 가운데 발군(拔群)의 기량을 뽐냈다.
 ② 할아버지께서는 숙환(宿患)으로 고생하시다가 끝내 별세하셨다.
 ③ 차량 두 대의 정면 추돌(追突)로 인해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였다.
 ④ 그는 현재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며 회장직을 고사(苦辭)하였다.
 ⑤ 선생님께서는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 차근차근 부연(敷衍)하기 시작하셨다.

21. <보기>의 ㉠~㉣에 해당하는 한자로 올바르게 묶인 것은?

- < 보 기 > —
- 그는 사람을 다루는 데 있어서만큼은 ㉠ 고수이다.
 - 두 나라는 서로에 대해 강경 노선을 ㉡ 고수하고 있다.
 - 아무리 명창이라도 ㉢ 고수의 도움 없이는 실력을 발휘할 수 없다.

- | | ㉠ | ㉡ | ㉢ |
|---|----|----|----|
| ① | 固守 | 鼓手 | 高手 |
| ② | 固守 | 高手 | 鼓手 |
| ③ | 高手 | 鼓手 | 固守 |
| ④ | 高手 | 固守 | 鼓手 |
| ⑤ | 鼓手 | 高手 | 固守 |

22. 단어 간의 의미 관계를 고려할 때, <보기>의 ㉠과 ㉡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 | ㉠ | ㉡ |
|---|----------|----------|
| ① | 포유류(哺乳類) | 삼일절(三一節) |
| ② | 포유류(哺乳類) | 현충일(顯忠日) |
| ③ | 파충류(爬蟲類) | 삼일절(三一節) |
| ④ | 양서류(兩棲類) | 현충일(顯忠日) |
| ⑤ | 양서류(兩棲類) | 광복절(光復節) |

23. <보기>의 ㉠과 ㉡의 관계와 유사한 것은?

- < 보 기 > —
- 서양에서는 환자가 사망했을 때, ㉠ “심장이 멈추었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우리는 ㉡ “숨이 끊어졌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 | | | |
|---------------|---------------|--------------|
| ① 은폐하다 : 가리다 | ② 늦다 : 결석하다 | ③ 화내다 : 무시하다 |
| ④ 사망하다 : 생존하다 | ⑤ 생존하다 : 보존하다 | |

24. 고유어 ‘닦다’와 한자어의 대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책상을 걸레로 닦았다. : 청소(淸掃)하다
- ② 자동차 전용 도로를 닦았다. : 건설(建設)하다
- ③ 전통 무예를 닦았다. : 수련(修練)하다
- ④ 건설 회사의 기반을 닦았다. : 준비(準備)하다
- ⑤ 사람을 그렇게 닦으면 안 된다. : 회유(懷柔)하다.

25. “우체국에 가서 급히 전문을 보냈다.”에 사용된 ‘전문’과 같은 의미는?

- ① 오늘 신문에 헌법 전문을 게재하였다.
- ② 어머니는 아들이 살아 있다는 전문을 들었다.
- ③ 입시 전문 기관들마다 학습 전략을 쏟아 내고 있다.
- ④ 고향 친구로부터 어머니께서 위독하시다는 전문을 받았다.
- ⑤ 내가 온다는 전문을 듣고 동구에는 술문을 세우고 길담이까지 하였다.

26. 속담을 사용한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는 ‘처삼촌 대에 벌초하듯’ 일하였다.
- ② 그는 ‘놓아먹인 망아지’처럼 버릇없이 행동한다.
- ③ 둘은 만나기만 하면 ‘소 닭 보듯’ 으르렁거린다.
- ④ 그는 ‘개 머루 먹듯’, 정확히 모르면서 아는 체 하였다.
- ⑤ 그는 유치장에서 풀려나오자 ‘굴레 벗은 말’이 된 듯한 기분이었다.

27. 다음 중 “아무 관계도 없이 한 일이 공교롭게도 때가 같아 억울하게 의심을 받거나 난처한 위치에 서게 됨.”을 의미하는 사자성어는?

- ① 유비무환(有備無患) ② 삼삼오오(三三五五) ③ 구우일모(九牛一毛)
- ④ 오비이락(鳥飛梨落) ⑤ 사필귀정(事必歸正)

28. 다음 관용구의 의미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무대에 서다’ → 공연에 참가하다.
- ② ‘귀에 딱지가 앉다’ → 같은 말을 여러 번 듣다.
- ③ ‘눈물이 앞서다’ → 일을 함에 있어서 감정이 앞서다.
- ④ ‘물로 보다’ → 사람을 하찮게 보거나 쉽게 생각하다.
- ⑤ ‘비행기를 태우다’ → 남을 지나치게 칭찬하거나 높이 추어올려 주다.

29. 다음 말을 쉬운 말로 순화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득(知得)하다: 깨달아 알다.
- ② 상위(相違)하다: 서로 일치하다.
- ③ 최고(催告)하다: 재촉하는 뜻을 알리다.
- ④ 주말(朱抹)하다: 붉은 먹을 묻힌 붓으로 글자 따위를 지우다.
- ⑤ 해태(懈怠)하다: 행동이 느리고 움직이거나 일하기를 싫어하다.

30. 밑줄 친 표현을 바르게 순화하지 못한 것은?

- ① 이 건물에는 무빙워크(→자동길)가 있어 이동하기 편리하다.
- ② 부상 선수가 많아 후반전 인저리 타임(→추가 시간)이 많이 주어졌다.
- ③ 지금은 거의 모든 지하철역에 스크린 도어(→안전문)가 설치되어 있다.
- ④ 나는 악의적인 기사에 의해 지속적으로 언론 플레이(→여론 몰이)를 당하고 있다.
- ⑤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열리는 팝업 창(→광고 창) 때문에 매번 성가시다.

[어법] (31번~45번)

31. 다음 중 단어 표기가 잘못된 것은?

- ① 확률(確率) ② 실패률(失敗率) ③ 백분율(百分率) ④ 비율(比率) ⑤ 치사율(致死率)

32. 다음 중 <보기>와 가장 거리가 먼 사례는?

— <보 기> —

한국어의 모음과 관련된 음운 현상으로 ‘모음 조화’가 있다. 모음 조화란 ‘ㅏ’, ‘ㅑ’ 따위의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ㅓ’, ‘ㅕ’ 따위의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현상을 뜻한다.

- ① 짹짹 ② 차곡차곡 ③ 알록달록 ④ 버럭버럭 ⑤ 모락모락

33. 밑줄 친 부분의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김 선생님은 책을 꾸준히 집필하고 계신다.
 ② 옷을 말끔히 차려입고 약속 장소에 나갔다.
 ③ 해결되지 않고 있던 사건들의 윤곽이 뚜렷이 드러났다.
 ④ 우리는 그 사안에 대한 해결책을 꼼꼼히 고민해 보았다.
 ⑤ 일을 마치고 헤어지면서 툭툭이 연락을 주고받기로 했다.

34.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은?

- ① 얼마나 힘들던 ㅍ지 눈물이 다 났다.
 ② 그 물건은 만 원 ㅍ남짓 되는 듯하다.
 ③ 나만 클 너를 생각해 주는 사람도 없어.
 ④ 경기가 시작된 ㅍ지 벌써 한 시간이나 지났다.
 ⑤ 모든 일들이 바라는 ㅍ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35. 밑줄 친 부분의 표기가 어법에 맞지 않는 것은?

- ① 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② 그 친구 보니까 말을 정말 잘하드라고.
 ③ 지난여름은 유난히도 더웠던 기억이 있다. ④ 어떤 것을 그리든 잘 그리기만 하면 된다.
 ⑤ 얼마나 힘들던지 눈을 뜨기 힘들 지경이었다.

36. 문장 부호의 쓰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겹낫표나 겹화살괄호 대신 큰따옴표를 쓸 수 있다.
 ② 줄임표(……)는 여섯 점을 찍는 것이 원칙이나 세 점을 찍을 수도 있다.
 ③ 겹낫표(『 』)와 겹화살괄호(《 》)는 책의 제목이나 신문 이름 등을 나타낼 때 쓴다.
 ④ 줄임표(……)의 점은 아래쪽에 찍으면 마침표와 혼동이 되므로 가운데에만 찍어야 한다.
 ⑤ 홑낫표(「 」)와 홑화살괄호(< >)는 소재목, 그림이나 노래와 같은 예술 작품의 제목, 상호, 법률, 규정 등을 나타낼 때 쓴다.

37. 어문 규범의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중, “다음 단어들은 거센소리를 가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라는 조항이 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 | | | | | |
|---------|-------|--------|------|-----|---|
| ㄱ | ㄴ | ㄱ | ㄴ | ㄱ | ㄴ |
| ① 나팔-꽃 | 나발-꽃 | ② 부엌 | 부억 | ③ 칸 | 간 |
| ④ 털어-먹다 | 떨어-먹다 | ⑤ 나침-판 | 나침-반 | | |

38.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 친구의 말이 ㉠ 짜장 거짓된 이야기만은 아니었다.
 - 아들은 학교를 마치면 ㉡ 으레 친구들과 야구를 하고 돌아왔다.
 - 그는 하도 ㉢ 얼척이 없어서 화도 내지 못했다.
 - 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 자리끼를 준비해 두곤 하였다.
 - 나는 ㉤ 다래끼가 났는지 눈시울이 발갛게 부어 있었다.

- ① ㉠: “과연 정말로.”라는 의미를 지닌 말로 방언이다.
 ② ㉡: “틀림없이 언제나.”라는 의미를 지닌 말로 표준어이다.
 ③ ㉢: “상상 밖의 엄청나게 큰 사람이나 사물.”이라는 의미를 지닌 말로 방언이다.
 ④ ㉣: “밤에 자다가 마시기 위하여 잠자리의 머리맡에 준비하여 두는 물.”을 이르는 말로 표준어이다.
 ⑤ ㉤: “속눈썹의 뿌리에 군이 들어가 눈시울이 발갛게 붓고 굵아서 생기는 작은 부스럼.”이라는 의미를 지닌 말로 표준어이다.

39. <보기>와 같이 발음되지 않는 것은?

- < 보 기 > —
- 표준 발음법 제20항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발음한다.

- ① 광한루 ② 물난리 ③ 줄넘기 ④ 천리 ⑤ 임진란

40. 이슬람교의 창시자 이름 표기가 맞는 것은?

- ① 무함마드 ② 모하멧 ③ 무하마드 ④ 마호멧 ⑤ 모하메트

41. 로마자 표기법이 틀린 것은?

- ① 충청북도 Chungcheongbuk-do
 ② 인왕리 Inwang-li
 ③ 퇴계로3가 Toegyero sam-ga
 ④ 신창읍 Sinchang-eup
 ⑤ 봉천1동 Bongcheon 1-dong

42. 다음 중 가장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은?

중국인의 의식 중심에는 언제나 중화사상이 놓여 있다. ① 분열과 통일이 씨줄과 날줄처럼 엮갈리며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중국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주변 민족을 통일 제국 시기의 중국사 일부로 편입시키는 작업을 계속해 왔다. ② 중국 지식인들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패권주의를 저지하는 일이 중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③ 만일의 사태를 예상하였을 때 친 중국파가 정권을 잡게 한 뒤 북한을 중국의 자치구로 편입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④ 1961년에 중국과 북한이 체결한 우호 조약에 의하면 상대 국가가 다른 국가에 의해 침략을 받아 전쟁이 발생한 경우 서로 자동적으로 그 전쟁에 개입하게 되어 있다. ⑤ 따라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개입은 도의적인 문제라면 몰라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43. 다음 중 문장 성분의 호응이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은?

- ① 확실한 사실은 그가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왔다.
- ② 비와 바람이 부는 사막을 지나 겨우 마을에 도착했다.
- ③ 영수는 빵과 우유를 마시고 나서 서둘러 버스에 올랐다.
- ④ 사물에 대해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⑤ 전문가들은 건망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대상을 응시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44. 다음 중 중의적으로 해석되지 않는 문장은?

- ① 이것은 나를 찍은 사진이 아니다.
- ② 명호는 아름다운 회서의 언니를 사랑한다.
- ③ 나는 어제 미국에서 온 친구를 만났다.
- ④ 저기 장화를 신고 있는 사람이 내 동생이야.
- ⑤ 달은 보통 카메라로는 선명하게 찍을 수 없다.

45. 밑줄 친 번역투의 문장을 잘못 고친 것은?

- ① 그는 참스승에 다름 아니다. → 참스승과 다름이 없다.
- ② 화분이 시들기 전에 많은 양의 물을 주십시오. → 물을 많이
- ③ 여름철 열사병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 지나침이 없다.
- ④ 이 숲에는 독사가 서식하고 있어 통행에 주의가 요구된다. → 주의가 필요하다.
- ⑤ 우리나라 축구 국가 대표 팀이 다음 달 일본 축구 국가 대표 팀과 경기를 갖는다. → 한다.

[쓰기] (46번~50번)

[46~50] ‘낙태죄’를 소재로 글을 작성하려고 한다. 제시된 물음에 답하시오.

46. <글쓰기 계획>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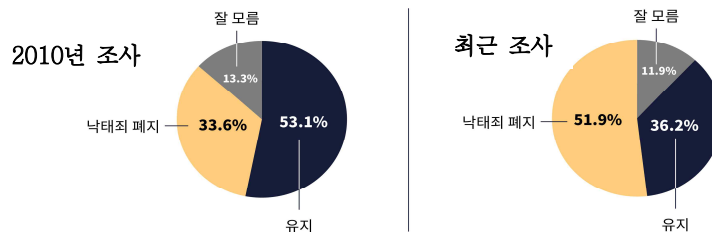
— < 글쓰기 계획 —

- 주제: 낙태죄 논란의 원인과 문제 개선을 위한 대책 촉구
- 목적: 낙태죄와 관련한 정보 전달 및 설득
- 예상 독자: 일반인
- 글의 내용
 - 낙태죄와 관련된 사회적 쟁점과 현황을 제시한다. ①
 - 낙태죄의 정확한 개념과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②
 - 낙태가 도덕성과 직결된 문제임을 밝히는 사례를 제시한다. ③
 - 낙태죄 유지 및 폐지에 대한 주장의 근거를 각각 제시한다. ④
 - 낙태죄 존폐 이외의 관점들을 조사하여 다양하게 제시한다. ⑤

47. <글쓰기 자료>에 제시된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글쓰기 자료 —

(가) 낙태죄 존폐에 대한 국민 여론 조사



(나) 낙태죄의 개념

모자 보건법에서 제시한 ①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 장애나 신체 질환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②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③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④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는 불법으로 규정됩니다.

(다) 관련 전문가 인터뷰 자료

1. 김OO 교수: 인간의 생명은 고귀합니다. 태아는 모체의 일부가 아니라 모체와 다른 별개의 인체, 즉 독립된 뇌세포와 신경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아는 독립된 인간이므로 생명권의 주체로 보호받아야 하고, 국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태아를 임신한 여성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생명권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기 때문에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해 낙태죄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2. 이OO 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의 발표를 통해 연간 17만 건의 낙태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낙태죄로 인해 낙태율이 줄어든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실제 낙태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낮은 피임율, 성차별적 사회구조, 미성년 또는 비혼 부모에 대한 편견과 차별, 과도한 양육 비용, 또 실질적인 보육 지원 제도의 부재입니다. 따라서 낙태죄는 사문화된 조항으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라) OECD 주요국 낙태 허용·금지 실태

사회·경제적 사유		임신부 요청	
허용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멕시코, 미국,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체코,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호주 등 30개국	허용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멕시코, 미국,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캐나다, 폴란드, 프랑스, 헝가리, 호주 등 27개국
불가	뉴질랜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칠레, 콜롬비아, 폴란드, 한국 등 7개국	불가	영국, 일본, 핀란드, 뉴질랜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칠레, 콜롬비아, 한국 등 10개국

- ① (가)를 활용해 낙태죄 폐지와 관련된 의견 대립이 지속적인 사회 문제임을 제시한다.
 ② (나)와 (라)를 활용해 외국과 비교하여 국내의 낙태 허용 기준이 엄격함을 설명한다.
 ③ (다)-2를 활용해 낙태를 법리적인 문제 이외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의견들을 제시한다.
 ④ (다)-2와 (라)를 활용해 효용성이 떨어지는 법으로 인해 발생한 낙태율의 변화가 사회적 논란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⑤ (가)와 (다)-1, 2를 활용해 태아의 생명권과 태아를 임신한 여성의 권리가 대립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밝힌다.

48. 위의 계획과 자료를 바탕으로 <개요>를 작성하였다. <개요>의 수정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글쓰기 개요 > —

- I. 낙태죄와 관련한 실태
 1. 낙태죄 존재 여부와 관련된 국민 여론 ㉠
 2. 낙태죄의 입법 배경
 II. 낙태죄의 성립 기준과 효용성
 1. 낙태죄의 개념
 2. 낙태죄와 관련된 국내 법령 ㉡
 3. 낙태죄로 인해 변화한 임신율의 변화 추이 ㉢
 4. 낙태죄의 효용성과 관련된 논란
 III. 낙태죄 폐지 찬반 입장 ㉣
 1. 낙태죄 유지의 주장과 근거
 2. 낙태죄 폐지의 주장과 근거
 3. 낙태죄와 연관된 새로운 관점
 IV. 낙태 예방을 통한 사회적 혼란 감소 ㉤

- ① ㉠은 논리적 흐름을 고려하여 ‘I-2’와 순서를 바꾸어 제시한다.
 ② ㉡은 상위 항목을 고려하여 ‘낙태죄 성립의 판단 기준’으로 고친다.
 ③ ㉢은 상위 항목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I의 하위 내용으로 옮긴다.
 ④ ㉣은 하위 항목을 포괄하지 못하므로 ‘낙태죄에 관한 다양한 관점’으로 수정한다.
 ⑤ ㉤은 글의 마지막 내용으로 부적절하므로 ‘낙태 예방을 위한 국가적 대책 마련 촉구’로 바꾼다.

[49~50] 위의 글쓰기 계획, 자료, 개요를 토대로 작성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 외의 낙태는 형법을 통해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은 제정 당시에도 격렬한 논쟁이 있었으나 6·25 전쟁으로 인해 인구가 감소되었고, 주권 유지를 위해 적절한 인구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법령 반대 주장을 압도하여 세워진 것이다. 그러나 입법 이후에도 법령에 대한 찬반 논쟁은 ㉠ 지속적으로 계속되었다. 설문조사 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2010년에는 법령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폐지 쪽에 무게가 실리면서 그 논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낙태죄와 관련된 법체계는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과 낙태의 허용 범위를 명기한 모자보건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 낙태죄는 국가에서 제시한 예외 조항들을 제외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인공임신중절을 처벌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자보건법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낙태는 형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물론 낙태죄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OECD의 많은 국가들도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낙태 허용 기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엄격하여 더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 이러한 엄격한 기준이 인구의 감소를 막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법의 낙태죄가 헌법이 규정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매년 이루어지는 낙태 수술 건수에 비해 낙태죄로 처벌받는 인원은 매우 미미한 것을 알 수 있다. 사실상 법이 사문화된 것이다.

하지만 사법적 조치를 강화하여 유명무실한 법령을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낙태죄 유지론자들의 주장이 있다. 이들은 개인의 기본권 침해라는 측면에서 태아를 임신한 여성의 개인적인 권리 침해는 인정할 수 있지만 여성이 임신한 태아는 독립된 인간이기 때문에 여성의 권리가 태아의 생명권보다 앞설 수는 없다고 한다. 따라서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위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이에 반해 낙태죄 폐지론자들은 태아가 태어나게 되더라도 자라나는 과정에서 인간답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자라날 환경이나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상적인 태아의 생명권을 주장하는 것이 공허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로 인해 실질적인 여성의 건강권이나 선택권이 제한을 받는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낙태죄 존폐와 관련된 두 가지 입장을 보면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태아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여 인간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누릴 환경이나 여건이 저절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낙태죄 존폐를 따지는 것 이상으로 여성이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의료적 지원과 출산 이후에도 양육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 사회적 인식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원치 않는 임신을 막기 위한 성교육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낙태 문제는 법을 강화하거나 폐지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 낙태를 선택하게 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입체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국가는 법의 존폐 여부만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법적 논란을 촉발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할 때 비로소 사회적 혼란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발전적인 사회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49. ㉠~㉤을 수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계속되었다’와 의미상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삭제한다.
- ② ㉡: 문장 간의 유기적인 연결이 이루어지도록 앞 문장과 위치를 바꾼다.
- ③ ㉢: 글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삭제한다.
- ④ ㉣: 문맥상 흐름을 고려해 ‘이에 따라’로 바꾼다.
- ⑤ ㉤: 서술어와의 호응을 고려해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제도 마련’으로 수정한다.

50. 윗글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통계 수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② 낙태죄의 유명무실함을 보여주기 위해 불법 낙태 시술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③ 글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었을 때의 기대 효과들을 추가한다.
- ④ 체계적인 내용 전개를 위해 국내법에서 낙태죄와 관련된 법 조항들을 순차적으로 제시한다.
- ⑤ 글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와 외국의 임신 및 낙태 비율을 비교하는 내용을 추가한다.

[창안] (51번~60번)

51. <사진>을 활용한 공익광고 문구를 <조건>에 맞게 창작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사진 > —	— < 조건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의 특성과 연관 지을 것. • ‘조화’를 주제로 할 것. • 긍정문으로 서술할 것.

- ① 서로 다르지만 잘 돌아갑니다!
- ② 소수의 엘리트가 전체를 움직입니다!
- ③ 과도한 친근함은 불쾌감을 불러옵니다!
- ④ 자기 역할만 강조하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 ⑤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조직은 굴러가지 않습니다!

52. ‘분수의 모습’을 ‘사람의 성품과 특성’에 비유하여 글을 쓰기로 하였다. 이끌어 낼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분수의 모습]	[사람의 성품과 특성]
① 넓게 퍼짐	포용력
② 여러 물줄기가 모여 조화를 이룸	협동심
③ 하늘을 향해 솟구침	꿈과 비전의 추구
④ 아래로 떨어진 물이 다시 솟아오름	도전 정신
⑤ 끊임없이 물줄기를 뿜어 올림	변화에 대한 여유

53. <보기>의 내용을 분석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타인보다 우수하다고 고귀한 것은 아니다. 과거의 자신보다 우수한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고귀한 것이다.”

- 어니스트 헤밍웨이(Ernest Miller Hemingway, 1899~1961)

- ① 타인과의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② 비슷한 구절을 반복하여 경쟁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 ③ 진정한 경쟁자는 타인이 아닌 어제의 자신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우열을 판단하는 기준과 고귀함을 판단하는 기준이 상이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⑤ 두 대상을 대조하여 공정한 경쟁을 통한 상호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54. 다음 <보기>의 맥락을 고려하여 ‘인생의 교훈’을 연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중국 쓰촨성 랑중시에 살고 있는 샤오시아는 암탉 여러 마리를 키우면서 소규모 양계장을 운영했다. 그런데 한 암탉이 알을 낳지 못하는 것이었다. ㉠ 샤오시아는 언젠가 저 닭도 알을 낳겠지 하며 무려 5년을 기다렸다. ㉡ 하지만 결국 사료만 축내고 알을 낳지 못하는 그 닭을 잡아 먹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암탉을 요리하기 위해 배를 가르자 황금색의 동그란 알이 나왔다. ㉢ 샤오시아는 범상치 않음을 느껴 황금알을 들고 전문가를 찾았다. 황금알은 다름 아닌 암탉의 배속에 있던 담석이었던 것이다. 전문가는 “㉣ 가금류의 담석은 귀중한 약재로 쓰인다.”며 “최근 1~2년 동안 이뤄진 거래 내용에 따르면 이 담석의 가격은 230만 위안(약 3억 9천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샤오시아는 “㉤ 이 행운을 가족과 기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뜻밖의 횡재를 한 소감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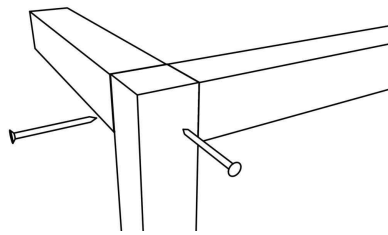
[기사]

[인생의 교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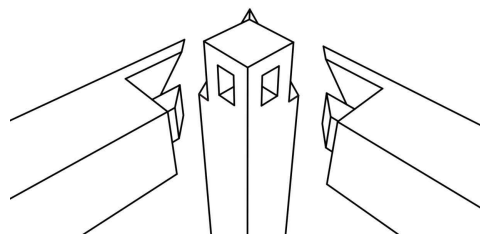
- ① ㉠ ➡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기다려 줄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
- ② ㉡ ➡ 상황 판단에 따른 시의 적절한 결단력이 필요하다.
- ③ ㉢ ➡ 잘 모르는 영역에 대해 판단할 때에는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④ ㉣ ➡ 하찮게 여겼던 것도 귀중하게 쓰일 수 있다.
- ⑤ ㉤ ➡ 끈질긴 노력은 반드시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다준다는 신념이 중요하다.

[55~57] 목공 기술과 인간 사회를 유비(類比)하고자 한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목재와 목재를 연결하는 기술은 쇠못으로 결합하는 방법과 짜 맞춤 기법이 있다. 쇠못을 박아 연결하는 방법은 쉽고 간단하지만, 쇠못과 목재의 틈새로 습기가 차게 되고 쇠못이 부식되어 결국 목재들은 오래 건디지 못하고 빠걱거리게 된다. 반면 목재들을 서로 물고 물리도록 깎아 결합하는 짜 맞춤 기법은 정교한 작업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한 번 결합되면 빠지거나 분해가 불가능할 정도로 아주 튼튼해진다. 짜 맞춤은 ㉠ 목재의 특성이나 만들하고자 하는 제품의 종류(집, 가구 등)에 따라 ‘삼장부 짜임’, ‘쌍장부쌍터 짜임’, ‘연귀축 짜임’과 같은 수많은 기법이 있다. 장인들의 아이디어와 땀이 배어 있는 다양한 짜 맞춤 기법을 통해 튼튼한 작품이 완성되는 것이다.



쇠못으로 결합



짜 맞춤으로 결합

55. ‘쇠못으로 결합하기’를 ‘외부의 개입’이라고 착안했을 때, ‘못’에 빗대어 설명할 수 있는 논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못은 효과가 검증된 해결 방안에 해당한다.
- ② 못은 구성원을 각성하게 하는 충고에 해당한다.
- ③ 못은 조직의 결속을 강하게 하는 외적 자극에 해당한다.
- ④ 못은 갈등의 확산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희생에 해당한다.
- ⑤ 못은 조직의 성격과는 다른 이질적인 해결 방안에 해당한다.

56. ‘짜 맞춤’을 ‘내부의 합의’라고 착안했을 때, ‘짜 맞춤’에 빗대어 설명할 수 있는 논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내부의 합의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함을 주장한다.
- ② 내부의 합의가 오히려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 ③ 내부 구성원들이 제안하는 다양한 방안을 모두 수용해야 함을 주장한다.
- ④ 내부 구성원의 능력이 향상되어야 조직이 강하게 결속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 ⑤ 내부 구성원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조화를 이루어야 조직이 강하게 결속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57. 윗글의 밑줄 친 ㉠을 활용하여 주장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조직의 특성에 맞는 합의 방식을 찾아야 함을 주장한다.
- ② 외부의 힘에 기대면 조직 내부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 ③ 조직을 화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하나로 융합해야 함을 주장한다.
- ④ 다양한 방안을 동시에 적용해야 조직을 강하게 결속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 ⑤ 조직을 강하게 결속시키는 다양한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해야 함을 주장한다.

[58~60] 다음 그림(가)와 (나)를 보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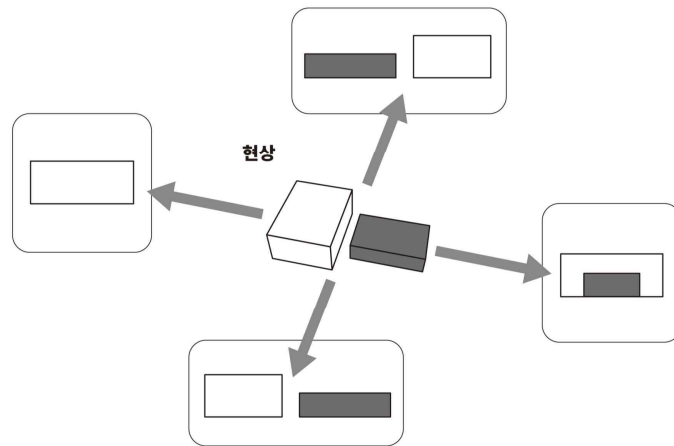


그림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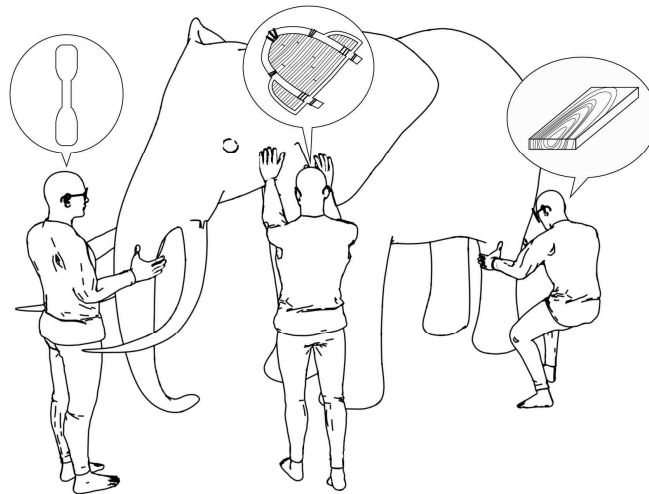


그림 (나)

58. 다음은 그림 (가)와 (나)를 분석한 표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나)
표현	현상을 보는 네 개의 틀을 제시	㉠ 군맹무상(群盲撫象)을 그림으로 표현
핵심	㉡ 시각의 차이에 따라 현상은 다르게 지각된다.	㉢ 관점에 따라 현상은 변화한다.
주제	㉣ 보이는 그대로가 현상의 전부라고 오판하지 말자.	㉤ 자신의 경험에 의존하여 현상을 오판하지 말자.

① ㉠

② ㉡

③ ㉢

④ ㉣

⑤ ㉤

59. 그림 (가)를 활용하여 이끌어낼 수 있는 논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현상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② 자신의 주장만을 되풀이하면 합의점을 찾을 수 없다.
- ③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가려서 들어야 한다.
- ④ 현상을 바라보는 여러 관점을 종합해야 그 본질에 근접할 수 있다.
- ⑤ 현상의 본질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의견을 따라야 한다.

60. 그림 (나)를 활용하여 다음 <보기>를 비판하는 논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장님 코끼리 만지기’는 장애인 비하 표현이므로 ‘일부만 알면서 전체를 아는 듯이’ 또는 ‘주먹구구식’이라는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 ○○ 뉴스

- ① 시각장애인이 촉각에 의존하여 판단하는 행위는 ‘대충하는 것’과 상통하지 않으므로 ‘주먹구구식’이라고 볼 수 없다.
- ② 시각장애인에게 코끼리의 부분을 만져 무엇인지를 알아내라는 요구하는 것은 ‘주먹구구식’이라기 보다는 ‘불능한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 더 적합하다.
- ③ 시각장애인에게 ‘부분을 만져서 전체를 알아내라고 요구하는 것’이 장애인 비하이지, 시각장애인이 촉각에 의존하여 판단하는 행위 자체가 장애인 비하는 아니다.
- ④ 시각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뛰어난 촉각을 가지고 있어서, 비장애인에 비해 오히려 사물의 본질을 깊게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주먹구구식’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 ⑤ 시각장애인이 코끼리의 일부를 만져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과정은 ‘일부만 알면서 전체를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경험을 토대로 판단하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읽기] (61번~90번)

[61~6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벌써 삼십 분이나 지났군.

출입문 위쪽에 붙은 낡은 벽시계가 여덟 시 십오 분을 가리키고 있다. 하긴 뭐 벌써라는 말을 쓰는 것도 새삼스럽다고 그는 고쳐 생각한다. 이렇게 작은 산골 간이역에서 제시간에 정확히 도착하는 완행열차를 보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님을 익히 알고 있는 탓이다. 더구나 오늘은 ㉠ 눈까지 내리고 있지 않은가.

역장은 손바닥을 비비며 창가로 다가가더니 유리창 너머로 무심히 시선을 던진다. 건널목 옆 외눈박이 ㉡ 수은등이 꺾충하게 서서 홀로 눈을 맞으며 희뿌연 얼굴로 땅바닥을 내려다보고 있다. 송이눈이다. 갓난아이의 주먹만 한 눈송이들은 어둠 저편에 까맣게 숨어 있다가 느닷없이 수은등의 불빛 속에 뛰어들어 오면서 툭그렇게 놀란 표정을 미처 지우지 못한 채 땅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굉장한 눈이다. 바람도 그리 없는데 눈발이 비스듬히 비껴 날리고 있다. 늙은 역장은 조금은 근심스러운 기색으로 유리창에 얼굴을 바짝 대어 본다. 하지만 콧김이 먼저 재빠르게 유리창에 달라붙어 뿌연 물방울을 만들었기 때문에 소매로 훔쳐 내야 했다. 철길은 아직까지는 이상이 없었다.

<중략>

음울한 표정의 중년 사내는 대학생이 아까부터 톱밥을 뿌려 대고 있는 모습을 곁에서 줄곧 지켜

보고 있는 참이다. 대학생의 얼굴은 줄곧 상기되어 있다.

이 젊은 친구가 어쩌면 꿈을 꾸고 있는지도 모르겠군. 그러면서도 사내 역시 톱밥을 한 줌 집어낸다. 그리고는 대학생이 하듯 달아오른 난로에 톱밥을 뿌려 준다. 호르르르. 역시 뻐비꽃 같은 불꽃이 환히 피어오른다. 사내는 불빛 속에서 누군가의 얼굴을 얼핏 본 듯하다. 허 씨 같기도 하고 전혀 낯 모르는 다른 사람인 것도 같은, 확실치 않은 얼굴이었다. 사내의 음울한 눈동자가 간절한 그리움으로 반짝 빛나기 시작한다. 사내는 다시 한 줌의 톱밥을 집어 불빛 속에 던져 넣고 있다.

어느새 농부도, 아낙네들도, 서울 여자와 춘심이도 이젠 모두 그 두 사람의 치기 어린 장난을 지켜보고 있다.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사평역을 경유하는 야간 ㉠완행열차는 두 시간을 연착한 후에야 도착했다.

막상 열차가 도착했을 때, ㉡대합실에서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던 승객들은 반가움보다는 차라리 피곤함과 허탈감에 젖은 모습으로 열차에 올라탔다. 늙은 역장은 하얗게 눈을 맞으며 깃발을 흔들어 출발 신호를 보냈고, 이어 열차는 천천히 미끄러져 가기 시작했다. 얼핏, 누군가가 아직 들어가지 않고 열차 난간에 기대어 서 있는 게 보였다. 역장은 그 사람이 재 너머 오 씨 큰아들임을 알았다. 고개를 반쯤 숙인 채 난간 손잡이에 위태로운 자세로 기대어 있는 청년의 모습이 역장은 웬지 마음에 걸렸다. 이내 열차는 어둠 속으로 길게 기적을 남기며 사라져 버렸다.

한동안 열차가 달려가 버린 어둠 저편을 망연히 응시하고 서 있던 늙은 역장은 옷에 금방 수북이 쌓인 눈을 털어 내며 대합실로 들어섰다. 난로를 꺼야 하기 때문이었다. 거기서 역장은 뜻밖에도 아직 기차를 타지 않고 남아 있는 한 사람을 발견했다. 미친 여자였다. 지금껏 난로 곁에 가지 않았던 유일한 사람이었던 그녀는 이제 난로를 독차지한 채, 아까 병든 늙은이가 앉았던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집이 어디며, 또 어디서 왔는지 역장은 전혀 모른다. 다만 이따금 그녀가 이 마을을 찾아 왔다가는 열차를 타고 떠나곤 했다는 정도만 기억할 뿐이었다. 오늘은 왜 이 여자가 다른 사람들을 따라 열차를 타지 않았을까 하고 역장은 의아하게 생각했다. 아마 그 여자에겐 갈 곳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녀에게 있어서 출발이란 것은 이 하룻밤, 아니 단 몇 분 동안이나마 홀로 누릴 수 있는 난로의 따뜻한 불기만큼의 의미조차도 없는 까닭이리라. 역장은 문득 그녀가 걱정스러웠다. 올 겨울 같은 혹독한 추위에 아직 얼어 죽지 않고 여기까지 흘러들어 왔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꿈이라도 꾸는 중인지, 땀국물에 젖은 여자의 입술 한 귀퉁이엔 보일락 말락 웃음이 한 조각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이거 참 난처한걸. 난로를 그대로 두고 갈 수도 없고…….

하지만 결국 역장은 김 씨를 깨우러 가기 전에 ㉢톱밥을 더 가져다가 난로에 부어 줘야겠다고 생각하며 천천히 사무실로 돌아가고 있었다. 눈은 밤새 내내 내릴 모양이었다.

- 임철우, 「사평역」

6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 회상을 통해 중심 사건을 제시하고 있다.
- ② 특정 인물의 시각을 빌려 등장인물들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역순행적 구성을 통해 사건 전개와 입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세밀한 배경 묘사 없이 공간의 이동을 중심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여러 인물 간의 갈등을 통해 시대적 상황을 짐작하게 하고 있다.

62. 밑줄 친 ㉠~㉣의 의미를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눈: 계절적 배경이 드러남과 동시에 사람들의 고단한 삶을 상징하고 있다.
- ② ㉡수은등: 홀로 눈을 맞고 있는 모습을 통해 고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연상하게 한다.
- ③ ㉢완행열차: 추위 속에서 편안한 휴식을 위해 기다리는 마지막 바람과 같은 대상이다.
- ④ ㉣대합실: 연착된 열차를 기다리며 여러 인물 간의 갈등이 유발되는 공간이다.
- ⑤ ㉤툽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여자를 위해 떠올린 것으로 고된 삶에 대한 연민을 의미한다.

63. 윗글에 나타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중년 사내’는 ‘대학생’의 행동에 불쾌함을 느꼈다.
- ② ‘역장’은 ‘오 씨 큰아들’의 행동을 그리워하고 있다.
- ③ ‘미친 여자’는 ‘병든 늙은이’의 채취를 그리워하고 있다.
- ④ ‘역장’은 승객들을 열차에 태워 보낸 후 피곤함과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
- ⑤ ‘서울 여자’와 ‘춘심이’는 ‘대학생’과 ‘중년 사내’의 행동에 특별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64~6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p>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담 우는 소리 들렸으랴.</p> <p>모든 산맥(山脈)들이 바다를 연모(戀慕)해 휘달릴 때에도 차마 이 곳을 범(犯)하딘 못하였으리라.</p> <p>끊임없는 광음(光陰)을 부지런한 계절(季節)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p>	<p>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梅花香氣) 홀로 아득하니 ㉠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p> <p>다시 천고(千古)의 뒤에 백마(白馬) 타고 오는 초인(超人)이 있어 이 광야(曠野)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p> <p style="text-align: right;">- 이육사, 「광야(廣野)」</p>
--	---

6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 ②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③ 대조적인 시어를 배치하여 시적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 ④ 동일한 종결형을 반복하여 시적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⑤ 시적 공간의 역사성을 강조하며 미래 지향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65. <보기>는 ㉠에 대한 설명이다. 이를 참고할 때 ㉠과 유사성이 가장 깊은 것은?

— < 보 기 > —

속죄양 모티프는 인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삶에서 비롯된 것으로, 자신을 희생하여 인류나 민족을 구원하려는 행위나 의식을 말한다.

- ①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 정호승, 「내가 사랑하는 사람」中

- ② 모가지를 드리우고 / 꽃처럼 붉은 피를
어두워 가는 하늘 밑에 /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 윤동주, 「십자가」中

- ③ 풀이 눕는다 /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 드디어 올었다 /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 다시 누웠다

- 김수영, 「풀」中

- ④ 어제 이 버스를 탔던 / 처녀 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의 입김과 숨결이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워 낸 /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 최두석, 「성에꽃」中

- ⑤ 멀리 동해 바다를 내려다보며 생각한다 / 널따란 바다처럼 너그러워질 수는 없을까
깊고 짙푸른 바다처럼 / 감싸고 끌어안고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
스스로는 억센 파도로 다스리면서 / 제 몸은 맵고 모진 매로 채찍질하면서

- 신경림, 「동해바다 - 후포에서」中

[66~6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느 공공 주택 단지의 인적이 드문 공터에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가 쌓여 해당 구청 측이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주기적으로 청소차와 인력을 보내 깔끔하게 치워도 하루 이틀만 지나면 다시 쓰레기가 쌓였다. 해결 방법을 고심하던 차에 한 공무원이 아이디어를 냈고, 그 결과 공터에 예쁜 꽃밭이 조성되었다. 그 이후 더 이상 그곳에 쓰레기가 쌓이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

어떤 선택을 강제로 금지하거나 경제적 유인책을 제공하지 않고도 예상 가능한 방향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넛지(nudge)’라고 한다. ‘넛지’는 원래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라는 의미를 지닌 영어 단어지만, 미국의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탈러와 하버드 로스쿨의 캐스 선스타인 교수는 ‘사람들의 바람직한 선택을 부드럽게 유도하되, 선택의 자유는 여전히 개인에게 열려 있는 상태’라는 의미로 이를 새롭게 정의했다. ‘넛지’ 형태의 간섭은 쉽게 피할 수 있어야 하며, 또 그렇게 하는데 비용도 적게 들어야 한다. 또한 ‘넛지’는 명령이나 지시가 아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해 공터에 꽃밭을 조성하는 것은 ‘넛지’다. 그러나 쓰레기 불법 투기자를 CCTV로 촬영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넛지’가 아니다.

이러한 ‘넛지’를 만드는 사람을 ‘선택 설계자(choice architect)’라 부른다. ‘선택 설계자’는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는 데 배경이 되는 정황이나 맥락을 만드는 사람이다.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선택 설계자’가 무수히 많다. 환자에게 선택 가능한 다양한 치료법을 설명하고 소개해야 하는 의사도 ‘선택 설계자’다. 학생에게 실천 가능한 여러 공부 방법이나 학교생활 개선 방법 등을 안내하는 교사도 ‘선택 설계자’다.

리처드 탈러와 캐스 선스타인 교수는 ‘선택 설계자’에 의한 ‘넛지’가 필요한 이유를 인간의 성향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들은 인간이 불합리한 존재라고 주장한다. 인간들 스스로는 자신을 합리적인 존재라고 여기고 있지만, 부족한 정보나 잘못된 편견, 판단 등으로 인해 부적절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느 백화점에서 당일 2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1만원 상당의 사은품을 주는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많은 사람들이 사은품을 받기 위해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구매한다. 사은품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합리적 선택을 했다고 흐뭇해한다. 하지만 약간의 시간이 지나 자신이 구입한 필요 없는 물건을 보고는 이내 자신의 잘못된 선택에 후회를 하는 것이다. 저자들은 이러한 인간의 불완전성에 근거하여 ‘넛지’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어떤 특정한 정책이나 방침이 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예측될 경우 ‘넛지’를 이용해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하게끔 사람들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넛지’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선택의 자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사람들의 선택을 의도적으로 유도하거나 조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넛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매우 미끄러운 비탈길을 미끄러져 내려가기 시작했다고 우려한다. 즉, 자유주의적 개입주의를 허용하고 받아들이면 이후에는 극도의 개입주의적 간섭이 뒤따를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넛지’ 찬성론자들은 과도한 자유주의가 오히려 인간의 잘못된 선택을 방관하고, 그 결과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유주의적 개입주의인 ‘넛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66.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넛지는 인간의 합리적이지 못한 특성으로 인해 필요하다.
- ② 넛지는 사람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 ③ 넛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넛지의 효과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 ④ 넛지로 인한 간섭을 피하는 데는 노력이나 비용이 적게 들어야 한다.
- ⑤ 넛지 찬성론자들은 인간의 잘못된 선택과 그로 인한 위험에 대해 염려한다.

67. ‘넛지’를 긍정적으로 활용한 사례는?

- ① 일정한 기간을 정해 정기 세일을 진행하는 백화점
- ② 포인트 적립 제도를 활용하여 판매량을 높이려는 카페 사장
- ③ 별점과 상점의 누적을 통해 학생들에게 별 또는 상을 주는 학교
- ④ 몸에 좋은 음식을 그렇지 않은 음식보다 더 잘 보이게 배열하는 영양사
- ⑤ 동일한 상품의 동시 구매 개수에 따라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는 대형 마트

68.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을 그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②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③ 상반된 관점의 주장을 절충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④ 기존 통념에 대한 비판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 ⑤ 글의 쟁점을 통시적으로 고찰하며 하나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

[69~7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백제와 신라의 황산벌 전투(660년)를 현대적 시각에서 해석한 영화 <황산벌>에서 백제인은 전라도 사투리를, 신라인은 경상도 사투리를 각각 사용하고 있다. 영화 ‘황산벌’에는 백제 군영에 몰래 잠입한 신라 첩자가 계백 장군의 말을 전하는 장면이 나온다.



계백 장군이 백제군에게 말하는 상황



계백의 말을 엿듣는 신라군 첩자



첩자의 말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는 신라군



신라 군영에서 계백의 말을 전하는 첩자

첩자: 백제 계백 장군이 “병사들에게 거시기하게 하고 머시기가 거시기할 때까지 거시기해 부러라.”라고 했습니다.

김유신: 암호 해독관! 해석해 보라.

암호 해독관: 첫 번째 거시기는 경계를 철저히 하라는 의미로 쉽게 해석되지만, 나머지 머시기와 거시기는 죽어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시기’를 전라도 방언쯤으로 알고 있으나, ‘거시기’는 표준어이며 ‘머시기’가 ‘거시기’의 전라도 방언이다. 거시기는 대명사와 감탄사로 쓰인다. 대명사 ‘거시기’는 말하는 도중에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이 얼른 생각나지 않거나 바로 말하기 곤란할 때, 그 이름 대신으로 내는 말이다. 감탄사 거시기는 하려는 말이 얼른 생각나지 않거나 바로 말하기가 거북할 때 쓰는 군소리에 해당한다.

발화(發話)는 생각이 음성적으로 실현된 것을 말하며, 이러한 발화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유기적인 통일체를 담화(談話)라고 한다. ‘거시기’와 ‘머시기’가 지칭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발화만을 분석해서는 곤란하며, 지칭 표현이 사용된 담화의 구조를 파악해야 한다. 이를 상황 의존적이라고 하며, 담화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는 언어적 표현 못지않게 장면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처럼 발화는 말하는 이, 듣는 이, 장면에 따라 의미가 결정된다. 담화의 구성 요소 네 가지를 말하는 이, 듣는 이, 내용(발화), 장면이라고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장면은 언어 외적 장면과 언어 내적 장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언어 외적 장면은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있는 시간과 공간이다. 그리고 언어 내적 장면은 한 발화의 앞뒤에 이어지는 발화의 연속체로서, 담화의 흐름이나 의미 해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백제 계백 장군이 사용한 대명사 ‘거시기’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이미 알고 있는 어떤 것을 가리킨다. 신라군이 계백 장군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까닭은 ㉠ 이다. 쉽게 말해 앞뒤 발화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언어 외적 장면과 언어 내적 장면 외에 담화 공동체의 가치, 역사적 경험, 관습과 같은 사회·문화적 장면도 있다. 장면을 맥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언어 외적 장면과 언어 내적 장면을 아울러서 상황 맥락이라고 한다. 사회·문화적 맥락은 문화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외국인과 의사소통할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이처럼 장면(맥락)은 담화에 구체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69.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담화와 발화의 차이점
- ② ‘거시기’와 ‘머시기’의 차이점
- ③ ‘거시기’의 용법과 활용 사례
- ④ 담화의 구조와 장면의 중요성
- ⑤ ‘거시기’를 통해 본 표준어와 방언

70.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계백과 병사들이 주고받은 발화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전달했기 때문이다.
- ② 거시기라는 지칭 표현이 사용되었던 언어 내적 장면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 ③ 계백 장군의 말을 엿들은 신라 첩자가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 ④ 군대 발화는 암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적군의 담화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⑤ 첩자의 말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계백 장군의 발화가 변형되었기 때문이다.

71. ‘거시기’의 용법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 ① 저기 안방에 거시기 좀 있어요?
- ② 이렇게 바쁠 때에 저 거시기는 어디 가고 없지?
- ③ 저, 거시기, 죄송합니다만, 제 부탁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 ④ 저 혼자서 한 게 아니고요, 거시기하고 같이 한 일입니다만
- ⑤ 자네도 기억하지? 우리 동창, 거시기 말이야, 늘 웃던 친구.

72. 윗글을 토대로 <보기>를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버스 안에서 여자: 저 이번에 내려요. (여자와 함께 내린 후) 남자: 전, 두 정거장이나 지났어요. 여자: (기뻐하며 웃음)	지하철 안에서 여자: 저 이번에 내려요. 남자: 그래요? (근처 여자 친구에게) 야, 여기에 자리 났다. 여자: (실망한 표정)

- ① 버스 안의 남자는 담화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 ② 지하철 안의 남자는 담화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 ③ 지하철 안의 남자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파악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 ④ 지하철 안의 남자는 여자의 발화를 ‘곧 자리가 난다’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 ⑤ 양쪽 모두 여자의 발화는 ‘호감이 있으니 같이 내렸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73~7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간처럼 유성생식을 하는 생물들은 모두 난자와 정자가 결합하는 수정이라는 과정을 거쳐 태어난다. 암컷과 수컷이 각각 자기 유전자의 절반을 넣어 만든 난자와 정자가 만나 하나의 수정란이 되어야 그로부터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하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유전자라고 부르는 것들은 대개 한데 뭉뚱그려 세포의 핵 속에 들어 있는 DNA를 의미한다. 그러나 세포 안에는 핵뿐 아니라 많은 세포소기관들이 들어 있다. 그 중의 하나로 세포가 사용하는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소기관이 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미토콘드리아 안에는 핵의 DNA와 다른 그들만의 고유한 DNA가 들어 있다. 이는 그 옛날 세포가 진화하던 초창기에 미토콘드리아가 독립적으로 생활하던 박테리아였다는 결정적인 증거인 셈이다. 이른바 ‘공생설’이라고 부르는 진화생물학 이론은 서로 다른 박테리아들이 공생과정을 통해 오늘날의 세포를 형성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핵이 융합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암수의 유전자가 공평하게 절반씩 결합하지만 핵을 제외한 세포질은 암컷이 홀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의 DNA는 온전히 암컷으로부터 오게 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생물의 계통을 밝히는 연구에서는 미토콘드리아의 DNA를 비교 분석하게 된다. 즉 철저하게 암컷의 계보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남자만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우리 족보와는 달리 생물학적인 족보는 암컷 즉 여성의 혈통만을 기록한다.

수정과 발생의 과정에서 남성이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만들어진 억지스러운 일들이 인간 사회에는 심심찮게 존재한다. 17~18세기 유럽의 생물학자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DNA의 존재를 모르던 시절이긴 하지만 당시 생물학자들은 정자 안에 이미 작은 인간이 들어있었다고 주장했다. ‘씨’는 이미 남성에게 의해 결정되어 있고 이름하여 ‘씨받이’로 간주된 여성은 그저 영양분을 제공하여 씨를 싹 틔우는 밭에 불과하다고 설명하려 했다. 정자 속에 이미 작은 사람이 들어 있다는 이론을 받아들이면 실로 어처구니없는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마치 러시아의 전통 인형처럼 그 작은 사람의 정자 속에는 더 작은 사람이 웅크리고 있어야 하고, 또 그 사람의 정자 속에는 더 작은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 사람의 정자 속에 또 더 작은 사람이 들어 있어야 하는 식의 ㉡무한대의 모순을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릇된 이념은 결국 과학의 객관성 앞에 무너지게 되어 있다.

수정 과정에서 암수의 역할은 다분히 비대칭적이다. 정자는 수컷의 유전물질을 난자에 전달하고 나면 그 소임을 다하지만 난자는 암컷의 유전물질은 물론 생명체의 초기 발생에 필요한 온갖 영양분을 다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핵 DNA는 정확하게 반씩 투자하지만 미토콘드리아 등 다른 세포소기관의 DNA는 암컷만이 홀로 제공하므로 유전물질만 비교해도 암컷의 기여도가 더 크다고 봐야 한다. 많은 경우 유전물질이 일단 배달된 다음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도 없는 수컷이 훗날 뒤늦게 정통성을 주장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어불성설이다.

73. 윗글을 통해 알 수 없는 것은?

- ① 미토콘드리아의 기원은 박테리아였다.
- ② 핵 속에 있는 DNA는 모계와 부계로부터 온 것이다.
- ③ 미토콘드리아의 주된 기능은 모계 혈통을 유지하는 것이다.
- ④ 핵뿐만 아니라 세포소기관 중에서도 DNA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 ⑤ 정자 안에 작은 인간이 내재해 있다는 가설은 무한대의 모순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74. 윗글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설명하고 있는 개념을 유사한 다른 상황에 적용하고 있다.
- ② 과학 개념에 대해 스스로 묻고 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 ③ 과학 개념을 구성하는 전체를 부분으로 나누어 비판하고 있다.
- ④ 역사적인 실험 결과를 구체적으로 재현하면서 결과를 논의하고 있다.
- ⑤ 오해하기 쉬운 과학적 개념을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현상을 비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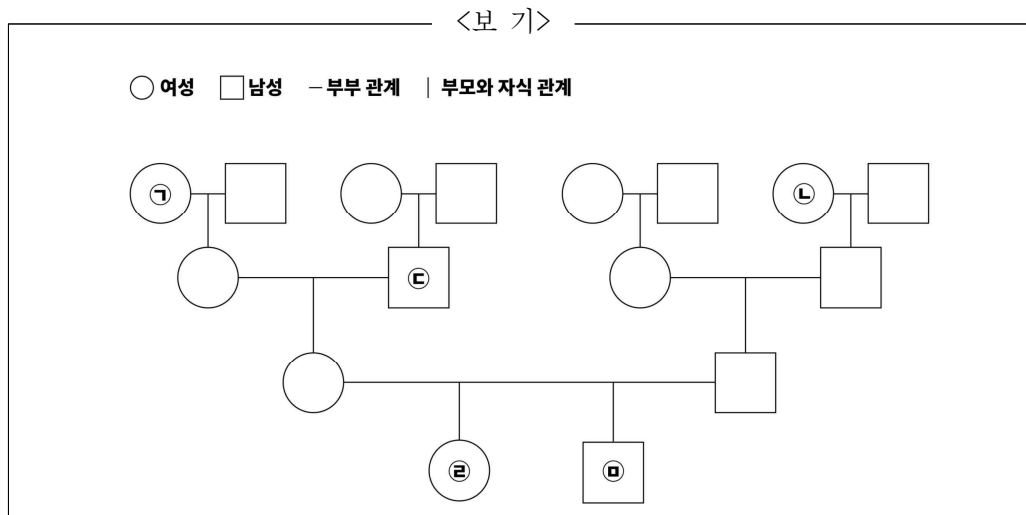
75. ㉠을 논거로 활용하여 할 수 있는 적합한 주장은?

- ① 남성 위주의 호주제는 생물학적 근거가 미약하다.
- ② 미토콘드리아 DNA를 중심으로 혈통을 따져야 한다.
- ③ 생물학적인 불평등을 인간 사회로 연장시켜서는 안 된다.
- ④ 인간의 족보와 생물학적인 족보의 차이점을 더 연구해야 한다.
- ⑤ 핵과 미토콘드리아의 DNA가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만 혈통을 따질 수 있다.

76. ㉡을 설명하고자 할 때, 들 수 있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잠을 자야 꿈을 꾸고 꿈을 꺾야 님을 볼 수 있다.
- ② 맛있는 것은 바나나이고 바나나는 길다. 길면 기차이고 기차는 빠르다.
- ③ 그들이 가난한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돈이 없는 까닭은 가난하기 때문이다.
- ④ 산을 그리고 있는 화가를 그린 그림 속에는 다시 산을 배경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화가의 그림이 있어야 한다.
- ⑤ 천하를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나라를 다스려야 하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집을 가지런히 하여야 한다.

77. <보기>에 표시된 가계도에서 미토콘드리아 DNA를 활용하여 친자 확인이 가능한 관계는?



- ① ㉠과 ㉡의 관계 ② ㉣과 ㉢의 관계 ③ ㉣과 ㉤의 관계
- ④ ㉢과 ㉡의 관계 ⑤ ㉢과 ㉤의 관계

[78~8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심장 정지 국민 행동 지침 _ 일반인 구조자용

1단계	심장정지 인지 행동
상황	누군가 갑자기 쓰러지거나 누군가 쓰러져 있는 것을 목격함.
행동	쓰러진 사람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며 외침. "괜찮으세요?"
반응 인지	반응이 없으면 심장마비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간주함.
주의 사항	의식이 있다면 그 사람은 대답을 하거나 움직이거나 신음 소리를 낼 것임.
2단계	구급차 및 자동 심장 충격기(자동 제세동기) 요청 행동
상황	심장 정지로 판단된 상황
행동	① 혼자 있을 경우 ● 직접 전화로 119에 신고함. ● 가까운 곳에 자동 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119에 신고하면서 가지고 옴. ② 다른 사람이 주변에 있는 경우 ● 심장 정지 환자가 발생했으니 119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한 후 호흡을 확인함. ● 가까운 곳에 자동 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119에 신고하면서 가져오게 함.
반응 인지	① 혼자 있을 경우 ● 119에 신고한 후 119(응급의료 전화 상담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함. ② 다른 사람이 주변에 있는 경우 ● 호흡 확인: 쓰러진 사람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정도 관찰, 호흡이 있는지를 확인 ● 심장 정지 호흡: 숨쉬기 힘들어 하거나 껑긑거리거나, 코를 골듯이 숨을 쉬는 경우
주의 사항	① 가족이나 친지에게 연락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119에 신고하도록 강조. ② 자동 심장 충격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거나 멀리 있는 경우에는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 오기 위하여 신고자가 환자의 곁을 떠나서는 안 됨. ③ 일반인은 호흡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호흡 확인 과정에서 119 응급의료 전화 상담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
3단계	가슴 압박 소생술 제공 행동
상황	119에 신고한 후 가슴 압박 소생술이 필요한 상황
행동	① 환자를 등이 땅(바닥이 평평하고 단단한 곳)에 닿도록 바로 눕힘. ② 구조자는 환자의 옆에 가까이 무릎을 꿇고 앉음. ③ 구조자는 한쪽 손바닥을 가슴뼈의 압박 위치(흉골의 아래쪽 절반 부위)에 대고 그 위에 다른 손바닥을 평행하게 겹쳐 두 손으로 압박함. ● 팔꿈치를 펴서 팔이 바닥에 대해 수직을 이룬 상태에서 체중을 이용하여 압박함. ● 가슴을 5cm 깊이로 깊게 누름. ● 누른 다음 가슴이 원래처럼 팽창하도록 손의 힘을 뺌. ● 약 1분에 100회 정도의 속도(1초에 한 번보다 약간 빠르게)로 가슴을 압박함. ● 만약 지치면 구급 대원이 올 때까지 다른 사람과 바꾸어서 시행함. ● 가슴 압박이 중단되지 않도록 계속 시행함.
반응 인지	환자가 의식이 있거나 자발 호흡이 있는 경우 또는 환자가 움직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장 정지가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가슴 압박을 중단하지 않도록 함.
주의 사항	① 구조자는 갈비뼈 골절 등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게 되므로, 손상을 유발하더라도 가슴 압박 소생술이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을 설명함. ② 가슴 압박 소생술을 실시한 경우 실시한 사람이 법적 도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면책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시킴. ③ 가슴 압박 소생술을 교대할 경우에도 가슴 압박이 중단되지 않도록 함.

4단계	자동 심장 충격기(자동 제세동기) 사용 행동
상황	자동 심장 충격기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
행동	① 자동 심장 충격기 전원을 켜. ② 자동 심장 충격기 패드를 그림에 따라 환자 가슴에 붙임. ③ 자동 심장 충격기가 심전도 분석을 함. ④ 음성 지시에 따라 전기 충격(제세동)을 줌. ⑤ 전기 충격을 준 후에는 즉시 가슴 압박을 계속함.
반응 인지	자동 심장 충격기로부터 음성 지시를 받음.
주의 사항	① 자동 심장 충격기가 심전도 분석과 전기충격을 실시할 때에는 환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함. ②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때에도 가슴 압박 소생술의 중단이 최소화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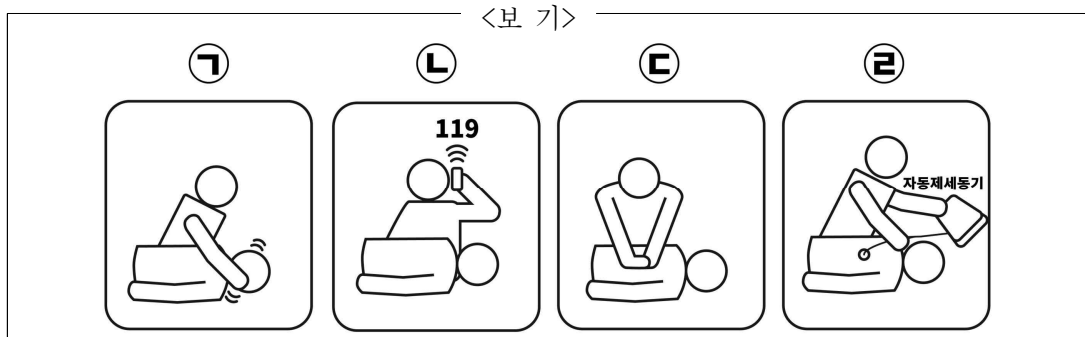
78. 윗글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빠른 시간 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지침이다.
- ② 가슴 압박 소생술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정리한 지침이다.
- ③ 인공호흡과 가슴 압박 소생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지침이다.
- ④ 혼자 있는 경우와 다른 사람이 있는 경우로 나누어 설명한 지침이다.
- ⑤ 가슴 압박 소생술을 ‘상황-행동-반응 인지-주의 사항’으로 나누어 정리한 지침이다.

79. 윗글을 읽고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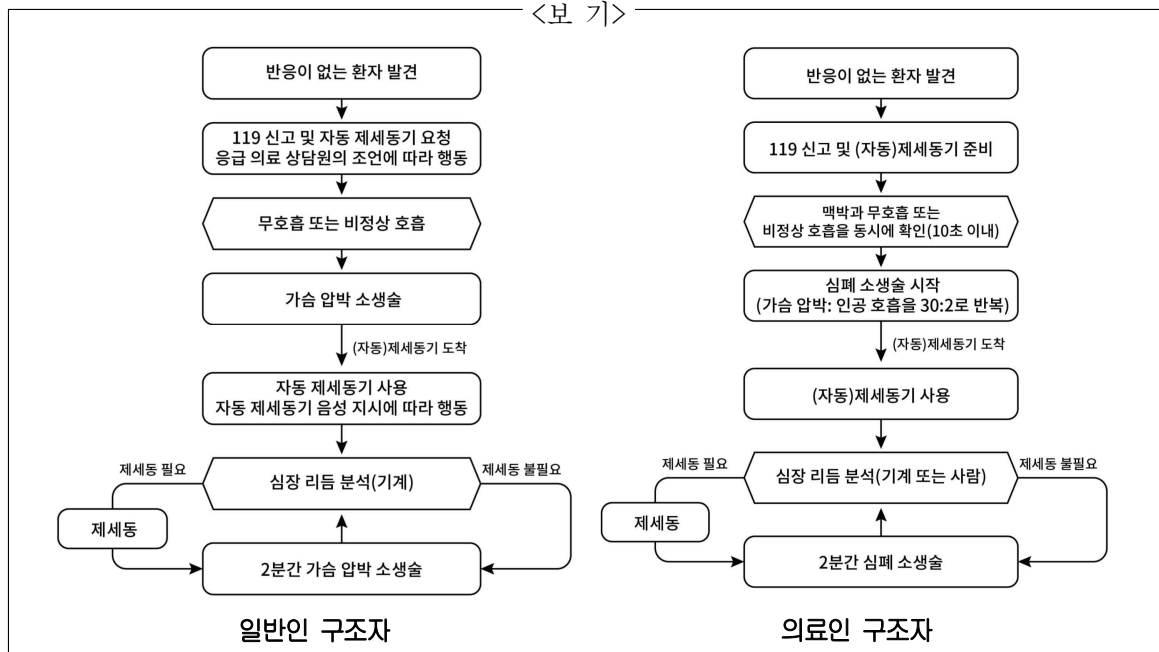
- ① 심정지 호흡이란 어떠한 상태를 의미하나요?
- ② 가슴 압박을 중지하지 않고 어떻게 교대하나요?
- ③ 환자가 어떠한 상태일 때, 가슴 압박을 중지해도 되나요?
- ④ 심정지 호흡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나요?
- ⑤ 가슴 압박 소생술을 하다가 환자를 다치게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되나요?

80. 초등학생을 위해 가슴 압박 소생술 4단계를 <보기>와 같은 포스터로 요약하고자 할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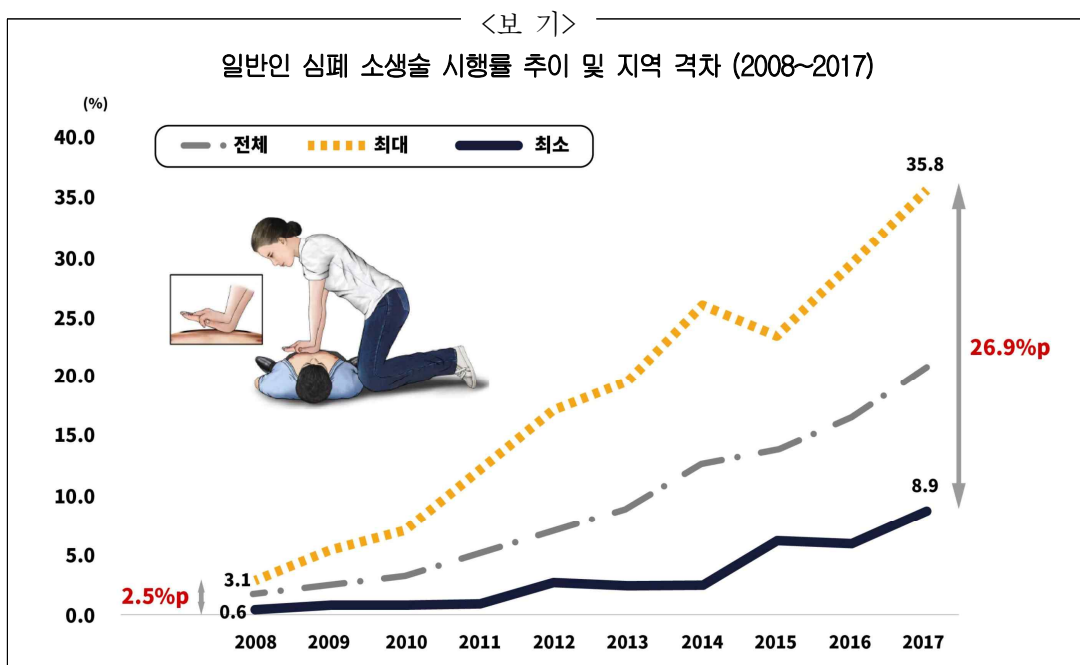
- ① 깨우고 - 알리고 - 누르고 - 사용하고
- ② 누르고 - 알리고 - 깨우고 - 사용하고
- ③ 흔들고 - 전화 받고 - 압박하고 - 설치하고
- ④ 흔들고 - 신고하고 - 호흡하고 - 충격 주고
- ⑤ 깨우고 - 전화 받고 - 마사지하고 - 부착하고

81. 심장 정지 환자의 구조 절차를 흐름도로 정리한 <보기>를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료인 구조자는 직접 심장 리듬을 분석할 수도 있다.
- ② 일반인 구조자를 도와주는 응급 의료 전화 상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 ③ 반응이 없는 환자의 호흡을 확인하는 절차보다 119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이다.
- ④ 일반인 구조자의 경우 심폐 소생술 대신 가슴 압박 소생술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⑤ 의료인 구조자의 경우 119에 신고하기 전에 환자의 맥박과 무호흡 여부를 확인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82. <보기>의 그래프를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체로 심폐 소생술 시행률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 ② 심폐 소생술의 지역 간 시행률 격차가 증가하고 있다.
- ③ 심폐 소생술의 전체 시행률은 2014년과 2015년 사이에 다소 감소하였다.
- ④ 심폐 소생술의 지역 간 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 ⑤ 심폐소생술 시행률이 가장 높은 지역의 2017년 시행률은 9년 전 대비 약 11배 증가하였다.

[83-8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공문서 작성 방법을 쉽고 편하게 바꾼다 (2017.11.1. 개정)

- 정부가 국민 행복 제안을 받아들여 공문서 작성을 쉽고 편하게 개선한다. 그간 공문서 작성 시 본문 시작을 제목의 첫 글자와 같은 위치부터 시작함에 따라 시작점을 찾기 어렵고, 불필요한 여백으로 인한 낭비가 발생한다는 국민 제안에 따라 기안 문서를 왼쪽 처음부터 띄어쓰기 없이 바로 시작하도록 개선하였다.

참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조(공문서 작성의 일반원칙) ① 공문서(이하 "문서"라 한다)의 내용을 둘 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면 그 항목을 순서(항목 구분이 숫자인 경우에는 오름차순, 한글인 경우에는 가나다순을 말한다)대로 표시하되, 상위 항목부터 하위 항목까지 1., 가., 1), 가), (1), (가), ①, ㉠의 형태로 표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 ○, -, · 등과 같은 특수한 기호로 표시할 수 있다. 하위 항목은 상위 항목이 시작된 곳에서 두 칸을 띄고 시작해야 한다.

기타 교육청 지침

※ ㉠ 본문에 추가 내용이 이어질 경우, 별도의 '다음(아래)' 표시를 하지 않고 직접 내용을 작성한다.

1. 관련: 간부 협의회 자료(2019.3.17)
2. 2019년 운영 계획에 따라 5월 협의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관계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삭제)

가. 일시: 2019. 5. 19(일) 10:50~14:00
나. 장소: 사내 제1회의실

83. 밑줄 친 ㉠의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미 오랫동안 '다음(아래)'을 써 왔기 때문에 쉽게 고칠 수 없다.
- ② '다음(아래)'이 지칭하는 것이 모호하기 때문에 제목처럼 쓰는 것은 어쩔 수 없다.
- ③ 추가되는 내용이 많은 경우에 한해서만 '다음(아래)'을 제목처럼 쓰는 것이 합리적이다.
- ④ 문서 내용의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아래)'과 같은 제목은 삭제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⑤ '다음(아래)'은 이 단어가 쓰인 문장 아래에 어떤 정보를 적는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는 없다.

84. 윗글에서 설명한 내용을 올바르게 적용한 공문은?

- ①
- | | |
|------|--------------|
| 수신 | 국방부장관(○○○과장) |
| (경유) | |
| 제목 | ○○○○○ |
| 1. | ○○○○○○○○○○ |
| 가. | ○○○○○○○○○○ |
| 1) | ○○○○○○○○○○ |
| 가) | ○○○○○○○○○○ |
- ②
- | | |
|------|--------------|
| 수신 | 국방부장관(○○○과장) |
| (경유) | |
| 제목 | ○○○○○ |
| 1. | ○○○○○○○○○○ |
| 가. | ○○○○○○○○○○ |
| 1) | ○○○○○○○○○○ |
| 가) | ○○○○○○○○○○ |
- ③
- | | |
|------|--------------|
| 수신 | 국방부장관(○○○과장) |
| (경유) | |
| 제목 | ○○○○○ |
| 1. | ○○○○○○○○○○ |
| 가. | ○○○○○○○○○○ |
| 1) | ○○○○○○○○○○ |
| 가) | ○○○○○○○○○○ |
- ④
- | | |
|------|--------------|
| 수신 | 국방부장관(○○○과장) |
| (경유) | |
| 제목 | ○○○○○ |
| 1. | ○○○○○○○○○○ |
| 가. | ○○○○○○○○○○ |
| 1) | ○○○○○○○○○○ |
| 가) | ○○○○○○○○○○ |
- ⑤
- | | |
|------|--------------|
| 수신 | 국방부장관(○○○과장) |
| (경유) | |
| 제목 | ○○○○○ |
| ■ | ○○○○○○○○○○ |
| ● | ○○○○○○○○○○ |
| - | ○○○○○○○○○○ |
| • | ○○○○○○○○○○ |

[85~8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 제주 지역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 첫 확인 -

- 질병관리본부는 제주지역에서 올해 첫 번째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채집(2019년 4월 6일)됨에 따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하였다.
- 일본뇌염 주의보는 매년 감염병 매개모기 감시 사업(3~11월)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를 처음 발견한 때 발령하며, 현재 제주 이외 지역에서는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 '작은빨간집모기'는 논, 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며,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매개모기에 물린 경우 99% 이상은 무증상 또는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일부에서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고, 급성뇌염 환자의 20~30%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 최근 10년간 일본뇌염 감시 결과, 신고된 환자의 약 90%가 40세 이상으로 나타나 해당 연령층에서 예방접종 권장 대상자의 경우에는 접종을 완료하고, 모기에 물리지 않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 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인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은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을 완료하여야 한다.
- * 만 12세 이하는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 기관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 가능하며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 접종 가능

구 분	일본뇌염 예방접종 실시 기준
불활성화 백신	총 5회 접종: 1~3차(생후 12~35개월) / 4차(만6세) / 5차(만12세)
약독화 생백신	총 2회 접종: 1~2차(생후 12~35개월)

- 성인의 경우, 면역력이 없고 모기 노출에 따른 감염 위험이 높은 대상자*는 일본뇌염 예방접종이 권장된다.

<성인 대상 일본뇌염 예방접종 기준>

* 과거 일본뇌염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성인 중 ① 위험 지역(논, 돼지 축사 인근)에 거주하거나 전파 시기에 위험지역에서 활동 예정인 경우, ② 비유행 지역에서 이주하여 국내에 장기 거주할 외국인, ③ 일본뇌염 유행 국가** 여행자, ④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다루는 실험실 요원

** 유행국가: 오스트레일리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미얀마, 캄보디아, 중국, 괌,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라오스, 말레이시아, 네팔,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러시아, 사이판, 싱가포르, 스리랑카, 대만,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서태평양 일부 지역

※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성인의 경우, 의료 기관에서 유료 접종(접종 백신 및 횃수 등은 의사와 상담 후 결정)

□ 질병관리본부 매개체분석과장은 최근 빨라진 일본뇌염 매개모기 확인 시점이 전년도에 비해 5일 늦어진 이유가 봄철 낮은 평균기온(심한 일교차)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하며,

○ 일단 매개모기의 활동이 시작되었으므로, 야외 활동 시와 가정에서 아래의 모기 회피 및 방제 요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첫째**, 야외 활동 시 밝은 색의 긴 바지와 긴 소매의 옷을 입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모기가 흡혈하지 못하게 품이 넓은 옷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 **둘째**, 노출된 피부나 옷, 신발 상단, 양말 등에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고, 야외 활동 시 모기를 유인할 수 있는 진한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 **셋째**, 가정 내에서는 방충망 또는 모기장을 사용하고, 캠핑 등으로 야외 취침 시에도 텐트 안에 모기 기피제가 처리된 모기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 **넷째**, 매개모기 유충의 서식지가 될 수 있는 집 주변의 웅덩이, 막힌 배수로 등에 고인 물을 없애서 모기가 서식하지 못하게 한다.

85.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 ① 유아의 경우 일본뇌염 예방접종 가능 시기는 생후 1년 이후부터이다.
- ② 일본뇌염 주의보는 매년 일정 기간 중 작은빨간집모기가 국내에서 최초 채집되면 발령된다.
- ③ 작은빨간집모기에 물려 급성뇌염으로 진행된 사람 중 20~30%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
- ④ 지난 10년 간 일본뇌염 환자 대부분이 40세 이상으로, 해당 연령층은 의무적으로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 ⑤ 일본뇌염 감염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중 과거 일본뇌염 예방접종 경험이 있는 사람은 예방접종 권장 대상이 아니다.

86. 윗글을 읽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불활성화 백신보다 약독화 생백신 사용을 늘려야 국가예방접종 사업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겠군.
- ② 작은빨간집모기는 물이 고여 있는 장소에 알을 낳고, 주간보다는 야간에 활동성이 증가하겠군.
- ③ 일본뇌염 매개모기의 최초 확인 시점은 봄철 평균기온이 높은 해일수록 빨라지는 경향을 보이겠군.
- ④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9세의 아동이 방학 중 충청남도 내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을 받는 것이 가능하겠군.
- ⑤ 작은빨간집모기에 물리지 않기 위해 야외 활동 전에 겉옷 표면과 옷 밖으로 노출되는 손 등에 모기 기피제를 뿌려야겠군.

87. 밑글을 읽고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 ① 일본뇌염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국가는?
- ② 일본뇌염 매개모기 유충이 성충이 되는 과정은?
- ③ 일본뇌염 매개모기를 유인할 위험성이 있는 행동은?
- ④ 일본뇌염 백신의 종류에 따른 유아의 접종 방법과 시기는?
- ⑤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하는 병원의 위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88~9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예술과 경제는 서로 다른 힘에 의해 움직이는 전혀 다른 세계일까? 그렇지 않다. 예술과 경제를 움직이는 공통된 힘이 존재한다. 이 두 분야를 움직이는 힘이 같다면 각 분야가 작동하는 원리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비슷할 것이다. 뛰어난 예술가들이 걸어 온 길을 살펴 우리의 경제와 기업 경영에 활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훌륭한 예술가는 이전의 상식을 허물고 새롭게 정의하는 재정의력을 활용해 독창적인 작품을 내놓는다. “미술의 역사는 미술에 대한 재정의의 역사다.”라고 할 만큼 예술의 대가들은 나름대로 미술을 재정의하며 창작해 왔다. 관습적 결합과 익숙한 인과관계를 해체하고 새롭게 합성하는 창조적 융합을 통해 재정의력을 보여준 화가가 바로 초현실주의 화가 르네 마그리트다. 그의 <공동 발명>이란 작품을 보자. 우리가 그동안 익숙하게 알고 있던 상식적인 인어와는 반대로 상반신이 어류이고 하반신이 사람이다. 이 그림을 통해 마그리트는 ‘거꾸로 뒤바꾸기’를 활용한 새로운 융합을 통해 인어를 재정의했다. 너무나 익숙한 현실을 거꾸로 뒤집어 지극히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초현실주의 화가 마그리트가 재정의한 미술이었다.



공동 발명



얼핏 보면 무섭지만 실은 좋은 사람이다

금융에서도 신상품을 개발하는데 ‘거꾸로 뒤바꾸기’를 통한 재정의력이 활용된 사례가 있다. 대표적 상품이 바로 역모기지대출이다. 역모기지대출이란 고령자가 자신의 집을 담보로 노후 생활 자금을 현금 형태로 지급받고, 그 고령자가 사망한 후 은행이 주택을 처분하여 고령자에게 지급한 원금을 상환받는 상품이다. 이 상품이 출시되기 전 상식적인 모기지지는 먼저 은행으로부터 주택 매입 자금을 빌려 주택을 구입하고 빌린 돈은 추후 장기간에 걸쳐서 갚아 나갔던 것이다.

일본 에도 시대 판화가인 우타가와 쿠니요시는 구부리고 있는 신체 모양을 활용해 얼굴을 그렸다. 1847년에 완성한 작품 <얼핏 보면 무섭지만 실은 좋은 사람이다>를 보자. 다양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합성하고 융합하여 인물의 얼굴을 표현했다. 이 작품을 통해 쿠니요시가 재정의한 그림은 바로 ㉠이다. 몸 전체보다는 얼굴이 작은 것이 당연하니 말이다. 그래서 이 작품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림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 중에도 ㉡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제품들이 있다. 남자들이 보통 사용하는 면도기가 그렇다. 처음 제품을 살 때는 본체와 면도날이 함께 묶여 있는 상품을 구입한다. 본체는 아주 오래 사용할 수 있으나 본체에 탈부착하는 면도날은 일정 기간 사용하면 무더지게 되어 교환해야 한다. 그런데 이 면도날 값이 비싸다. 게다가 본체와 면도날 간의 호환성이 적어 전에 구입했던 상품의 면도날을 살 수 밖에 없다.

이렇듯 예술과 경제는 관습과 상식에서 벗어난 창조적 융합을 통해 기존의 것들을 새롭게 정의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런 새로운 시도들이 침체되고 정체된 기존의 예술계와 경제계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 넣음으로써 두 분야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던 것이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88. 윗글을 신문에 기고하고자 할 때,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예술과 경제의 공통된 힘, 재정의력!
- ② 침체된 예술계의 문제 해결법, 경제에서 찾다!
- ③ 미술과 경제를 이끌어 온 동력, 독창성과 호환성!
- ④ 상품 속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예술가의 아이디어!
- ⑤ 예술가의 눈으로 경제를 바라보다, 경제 속에 숨은 예술!

89. 문맥을 고려할 때,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큰 것을 통해 작은 것을 표현하는 수단
- ② 다양성과 통일성을 동시에 그려내는 수단
- ③ 현실을 기반으로 초현실을 추구하는 수단
- ④ 사실성을 바탕으로 현실을 비판하는 수단
- ⑤ 창조적 융합을 통해 상상력을 표현하는 수단

90. ㉣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프린터보다 토너가 더 비쌀 때
- ② 제품 가격보다 배송비가 더 비쌀 때
- ③ 상품의 구입 가격보다 유지 비용이 더 클 때
- ④ 회사 주변 식당보다 구내식당의 음식 값이 더 비쌀 때
- ⑤ 수해 대상의 선별에 드는 비용이 수해자에게 지급될 복지 예산보다 더 클 때

[국어 문화] (91번~100번)

91. <보기>를 바탕으로 다음 음운 현상을 분석하려고 한다. ㉠과 ㉡에 들어갈 말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 < 보 기 > —

‘문법[뽄뽄], 신비[심비], 감기[강기].’ 이 세 단어의 발음에 나타나는 음운 현상의 특징은 무엇일까? 먼저 후행 음절 초성의 특성으로 인해 선행 음절의 종성이 변하는 ㉠이 (가) 발생한다. 더불어 발음의 경제성을 위해 후행 음절 초성의 조음 ㉡와(과) 선행 음절 종성의 그것이 같아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음운 현상은 수의적인 변동으로, 이러한 변동의 결과는 표준 발음법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	㉡
①	순행 동화	방법
②	순행 동화	위치
③	역행 동화	방법
④	상호 동화	위치
⑤	역행 동화	위치

92. 다음 중 불규칙 활용 용언이 아닌 것은?

① 답다 ② 부수다 ③ 푸르다 ④ 일컫다 ⑤ 하얗다

93. 다음 중 서술절을 가진 안은문장은?

- ① 영호는 대학생이 아니다. ② 캥거루는 앞발이 매우 짧다.
 ③ 그녀와 나는 결국 결혼했다. ④ 아버지께서 문학 박사가 되셨다.
 ⑤ 많은 사람들은 그 이론을 의심했다.

94. <보기>를 참조할 때, 중세 의문문이 올바르게 쓰이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1. 의문문의 종류
 - 판정 의문문: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만을 요구하는 의문문
 - 설명 의문문: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의문문

2. 의문문 실현 방법
 - 판정 의문문: ‘-아’ 계열 의문형 종결 어미(‘-가’, ‘-녀’, ‘-려’) 또는 의문 보조사 ‘가/아’가 쓰임.
 - 설명 의문문: ‘-오’ 계열 의문형 종결 어미(‘-고’, ‘-뇨’, ‘-료’) 또는 의문 보조사 ‘고/오’가 쓰임.

- ① 이 었던 사릅고 (이 어떤 사람이냐?) ② 이 썩리 너희 쏹가 (이 여자가 너희 쏹이냐?)
 ③ 이 이리 쉬우녀 (이 일이 쉽냐?) ④ 태자(太子)ㅣ 어디 잇느뇨 (태자가 어디 있느냐?)
 ⑤ 어마니믈 아라보리로소니잇고 (어머님을 알아보겠습니까?)

95. 다음 중 반영론적 관점에서 문학 작품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자아에 대한 애증과 자기 성찰에 대한 의지가 드러난다.
- ② 회화적 이미지를 기반으로 평이한 구어체를 사용하고 있다.
- ③ 이 작품은 독자들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 돌아보게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 ④ 화자가 직접 표면에 드러나기보다는 화자의 분신을 통해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일제 강점 하에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했던 당대 지식인의 갈등이 드러난다.

96.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문학 양식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고려 시대에 주로 창작되었으나 조선 시대에도 이어진 양식으로, 술이나 엽전, 지팡이 등 주로 사물들을 의인화하여 한 인물의 일대기를 서술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사물에 빗대어 인간의 도리를 확인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세상사와 삶의 태도에 대해 깨우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 ① 허균, <남궁선생전> ② 임춘, <공방전> ③ 이첨, <저생전>
- ④ 이규보, <국선생전> ⑤ 석식영암, <정시자전>

97.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작품을 쓴 작가는?

— < 보 기 > —

이 소설은 응칠, 응오 두 형제의 삶을 중심으로 식민지 농촌 사회에 가해지는 가혹한 삶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순박하고 모범적인 농군인 주인공 응오는 자기 논의 벼를 훔치는 파렴치한이 되고 마는데 이 소설의 제목은 ‘염치가 없이 막된 사람.’ 또는 ‘파렴치한’을 의미한다.

- ① 김성한 ② 김유정 ③ 전영택 ④ 이태준 ⑤ 황순원

98.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작가의 작품은?

— < 보 기 > —

1925년 『소설작법(小說作法)』에서 그는 소설의 시점을 ‘일원 묘사체’, ‘다원 묘사체’, ‘순객관적 묘사체’로 나누었다. 그 중 일원 묘사체는 다시 A 형식과 B 형식으로 구분하였으니, 결국 네 개의 시점 이론을 설명한 셈이다.

- ① 『무정』 ② 『감자』 ③ 『탁류』 ④ 『돌다리』 ⑤ 『사랑손님과 어머니』

99. 다음 상황에서 사용된 높임 표현이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극장 매표소에서) “영화는 8시에 상영하십니다.”
- ② (커피숍에서) “손님, 주문하신 음료 나오셨습니다.”
- ③ (점원이 계산하면서) “삼만 원만 내시면 되겠습니다.”
- ④ (화장실을 찾는 손님에게) “오른쪽으로 돌면 있습니다.”
- ⑤ (회사 기념식장에서) “사장님의 축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100. <보기>는 북한의 그림책에 실린 글이다. ㉠~㉥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어느덧 ㉠ 해님이 ㉡ 산너머로 사라지고 밤어둠이 자리를 펴기 시작하였습니다.
《애들아, 우리 공원을 한번 돌아보자꾸나. 도대체 이 공원에 무엇이 있을까?》
세 아이는 이렇게 속삭이며 받침돌 위에서 땅위에 ㉢ 사뿐히 뛰어내렸습니다. 그들은 먼저 분수가
쫓구쳐오르는 못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 여러가지 돌조각이 있었습니다. 빨간 금붕어 두 마리가
주둥이로 물을 뿜어 올리는가 하면 물에서는 오리들이 ㉤ 알락달락한 빨을 물위에 띄워놓고 장
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 ① ㉠: 남한에서는 북한에서와 달리 사이시옷을 표기한 ‘햇님’이 맞춤법에 적절하겠군.
② ㉡: 남한에서는 북한에서와 달리 ‘산 넘어’로 쓰는 것이 문맥상 적절하겠군.
③ ㉢: 남한에서는 북한에서와 달리 ‘사뿐이’로 표기하는 것이 규정에 맞겠군.
④ ㉣: 남한에서는 북한에서와 달리 ‘여러 가지’로 띄어 쓰는 것이 맞춤법에 적절하겠군.
⑤ ㉤: 남한에서는 북한에서와 달리 ‘알록달록한’으로 쓰는 것이 맞춤법에 적절하겠군.

확인 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적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